東亞日報
刊夕
本紙十二面

佛蘇軍事同盟에서 軍需工業에까지進出

蘇政府信用設定에成功

蘇蒙條約逆用 蘇中密約促進

國府內親蘇派暗躍

日本과北中政權의 協定에도干與치말라

蘇蒙協定과各國態度를보고 日本外務當局의見解

世界의輿論 去就에迷惑

蘇蒙協定에對하야

昭憲皇太后祭

在哈佐藤總領事 對蘇嚴重抗議

蘇聯側의越境事件으로

施特派員도 嚴重抗議

兵二名戰死 二名의死體 引渡를要求

蔣氏漢口에서 軍事政治會議

日本의誤解를避하야西下中 各省軍事首腦招致

蔣氏北中對策 매우積極的

二·二六事件眞相 議會劈頭發表?

政府議會對策協議

歡喜의카탈로니아

伊太利南北兩軍 首都先入을競爭

一方政治工作도進行

聯盟의步調不一 伊에問題益紛糾

强硬한英國어디까지버틸가?

全産聯의方向轉換

資本家偏重一掃 從業員의待遇改善

鄕會長重大聲明發表

全産聯將來의動向에對한聲明

有田外相、首相과 長時間重要協議

國境紛擾와中國問題로

山西政治改革 陳誠氏에命令

蔣介石氏가

山西省에는 中央軍充滿

今井武官歸來談

課稅行政權委讓

五月中調印

肅軍의第二段으로 國政一新에邁進

寺內陸相의決意

制裁案撤回 休戰의前提條件

伊政府强硬意向表明

伊에가聯盟에 各其覺書提出

서로非人道的 行爲를指摘!

△伊國政府의覺書

△에國政府의覺書

十三國委員會 一日休會

辭令

ClibPDF - www.fastio.com

生活戰線初年兵 ⑤

어머니의仁慈와 兄弟의愛情으로

教科書代身 人格과感化로、舍監은이집에主人

언제나 부드러운 봄바람 평화한 봄동산에 리화(梨花)의 꽃이 만발한 하원에서 자라고 또한 첫열매를 맺어 百五十여명의 기숙생의

─△사표▽─ 가 된 아니 언니도 되고 어머니도 된 리화고보교(梨花高普校) 기숙사사감(舍監) 임명순(林命順)씨를 정동통교 기숙사로 찾기는 十일오후수많은 한가족이 기숙사식타에서식사가 버러지는 오후五시반경。

분망한 시간의 한틈을 내어 기자를 맞어주는 그는 초면병의 사감같지는 안엇다。 뒤에알고 보니 보통과도 중등과 전문도 리화이자 사감도 하생시대이엇든것이다。

─△기숙▽─ 사생활에 닳고 쓴 경험이잇는 그는 치하하고도 쾌활한 그는 지리리해만흔사감을 가진 기숙사생들의 편의은 설명을 기대리지안고도 짐작할수잇다。

오래 기숙사생으로서의 관념 기숙사 사감으로서의 감상, 기분 또는 사감으로서의 태도를 물으매 다음과같이 우슴을 석어 말합니다。

오래기숙사생으로 잇는동안에는 기숙사 사감에 대한 요망이 「사감은 모름지기 인자하기는 어머니와같이 예정과

─△친절▽─ 하긴 언니와같이 그러나또한 다스리기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한 교육자의 태도로써 한가정의 어른이 되어주엇으면」 하엿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자리에 앉고 보니 결코 쉬운것이 아닌가합니다。

교단에 서서 학과를 가르치는것이라면 교과서를 의지할수도 잇겟지오만은 교과서대신에 인격과 실행 또는 감화로써 교과(教科)를 삼지안흘수 없는때문입니다。

어떠케하면 수많은 기숙생들이 한집안 식구와같이 또는 따뜻한 사랑의

─△가정▽─ 분위기속에서 아무 불안도없이 단란한 한가정을 이루어볼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고저하는 이상향에서 또는 내─한품속에 포용이 될가?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소위사감이 된지도 二주일이채 못된 때이므로 금후의 성과를 미리 점칠수는 없습니다。

우리학교가 가족교의 경영인만큼 나의 힘이 부족되는것은

─△신앙▽─ 의 위대한힘으로써。 그를 믿습니다。

이직업이 직업인만큼 단순한 직업적 의식으로서는 될수없는 일이요、나역시이직업에 몸을 바쳣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신학기초 신입생이 三분의一이나되는만큼 식성도 가지 가지 어떠케하면 그들의 식성을 마추고 또한 중진시킬가?하는것이 하창에서는 꿈에도 꾸지 못하든 심려요 노력입니다。

姓名	林命順(二?)
出身校	梨花女專家事科
就職處	梨花女高普校
就職日	三月二十八日

◇一 그리고 제일기뿌고 가장

─△유쾌▽─ 한것은 수많은 기숙생들이 아무탈없이 한식탁에서 맛잇는 음식이나 맛없는음식이나 식사를같이하는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사람사는 형제요 한가정이엇습니다。 동무입니다。

우리기숙사의 시간과 규측은

◇起床=午前六時
◇就寢=午後十時
◇面會=火曜、木曜 (午後四時─五時)
◇外出=第一土曜、第二土曜 (午後一時─五時)

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특별한 사정은 차한에 부재지요。 나의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없고 실태가 없는 범위에서 각자의

─△개성▽─ 을 존중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심달죽이는것 과 같은 구속과 제재를 주고 싶지는 안허요。 (끝)

入學兒童保護者의 "納稅證明"添付

府民子弟本位、地方兒童防止

明年度부터實現될듯

兒童入學難緩和一策

금년도에 부내 二十五개소 공보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학령아동(學齡兒童)수는 一萬三千二명에 달하엿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보교에 수용된 아동수효는 五千四百九十二명에 불과하야 남어지四千여명의아동은 가두에서방황하게 되엇는지라 이 비참한 입학난지옥(入學難地獄)의 완화는 제는 사계의 여론을 이르킨바 되엇섯다。 즉 조선의 심장도 시인 대경성에잇어서 그와같은 입학난이 그대로 계속된다는것은 방치할수없는문제라하야 부의원(府議員)들은 교육세(教育稅)와 중세단행을 하여서라도 부내 초등교육기관의 확충을 기하여야 하겟다 하야 일금 부학무과에 위탁하야 그에 대한 구체안(具體案)을 작성중이며 또 정동회(町洞會)에서는 관계당국을 방문하고 입학난완화에 대한 진정을 하엿다 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러한 사실에 자극을 받엇음인지 부 학무과에서는 입학난 완화를 위한 한개 방법으로 명년도부터는 입학지원수속(入學手續)을 변경할 뜻을 가지고 잇다 한다。

그것은 경성부민의 자제입학을 본위로 하기 위한것이라는데 지금까지는 단순히 거주증명(居住證明)만을 지원서에 첨부하는 형식을 취하야 왓든만큼 지방의 부호들은 자제의 거주계만을 경성에 하야 노흐면 문제없이 입학되엇다 한다。

이 폐단을 없이고저 방금 부학무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잇는데 될수 명년도부터는 입학원서에 거주증명을 첨부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납세증명(納稅證明)까지 첨부하야 입하지원자가 확실히 경성부민의 자제임을 증명시킬 방침같다 한다。

商人으로變裝

反滿軍安東縣에潛入

【안동현】 삼각지대(三角地帶)에 근거를둔 반만군연생당(聯生黨)두목은 소상인(商人)반만군과 연락을취하야 부하四十명으로 편의대(便衣隊)를 편성하야가지고 농민 승녀(僧侶)상인등으로 변장시켜 최근 봉성현황토감(鳳城縣黃土坎)까지에 잠복하야 안봉선(安奉線)대에 상입하려고 경비상황과 기타정보를 수집하는중이라하야 일반관헌은 그 경계중에잇다

八百轉學生本位의 學級增設問題再燃

再次로府議員懇談會를開催

最後의決定은今日

예상이외로 다수에 달한 전학생(轉學生)의 수용책을 완화하기 위하야 경성부학무과(學務課)에서 전학생 수용을 본위(本位)로한 학급증설안을 세워가지고 지난 八일 오후二시부터 경성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二부교육부회(第二部教育部會)와 간담회에 상정하엿으나 부의원들이 우물쭈물하니가 그대로 묵살하야버리고 마럿다나 함은 기보한바이니와 그로써 학급증설안은 사라진것이 아니요 이지음 또다시 그문제는 대두하야 一부의원들은 실현을 역설하는동시에 그에대한 선후책을 강구하고잇다 한다。 즉 八일에 열린 간담회에서와 학급증설안에 찬성을하든 의원들은 봉안은 전하지방사람 위하야 기어히 실현하여야겟다는 결심밑에 하고 방금 비공식적으로 제二부 회의원들은 타협을 진행중이라는대 그비공식적 타협은 十二일로써 일단락짓고 그결과여하에 따라서 제二부 교육부회 간담회를 다시 개최하야 학급증설안을 토의하야 최후결정이라는데 그문제가 八百여전학생에게 즉접 관계가 잇는만큼 그귀추는 자못 중대시된다고 한다。

轉學生收容의 餘裕는잇다

이문제에 대하야 경성부 모의원(府議員)은 다음과같이 말한다

전학생을 수용할 장소가 없다면 그야 할수없는셈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현(仁峴)공보교에는 一반 해화(惠化)공보교에는 三반 그외 매동(梅洞)、죽첨(竹添)공보교에는 상당이잇어 수학급은 능히 만들어 볼수잇으므로 학급증설에 관한 제一난관은 없어진셈으로 볼수잇읍니다。 또 증설되는 학급의 경비가 문제이나 그것은 전학생의 대부분이 중산계급이상의 가정에 속하고잇는만큼 그금액가 고치기 위하야 하나를 반든다는데 수十원씩본을 내어 경비에 충당한다는데 대하야 수지하지는 안흠것입니다。 현재 소학교에 조선아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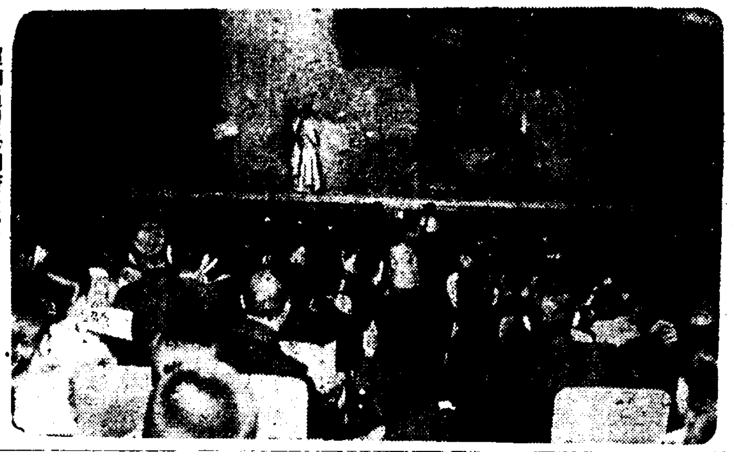
轉學은府民本位

地方兒童에겐不許

藤江學務課長談

이문제에 대하야 경성부 등강(藤江)학무과장은 금년도에 예상 이외로 전학지원자가 근八백명에 달하엿는데 실재수용인원은 一百五十二명밖에 되지안허 실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학지망자에 대하여서는 자세히 조사하야 경성부민의 자제를 본위(本位)로 입학을 허가하고 지방에서 경성 학교를 흠모하는 정에서 전하지망을 하여온 아이들은 입학을 허가치 안캣습니다。

만약 경성부민의 자제들이 만허서 그들을 전부 수용할수 없다면 그들을 위한 학급증설도 부득이한 일이겟지요。 그러나 경성부에는 학급증설에 대한 재반준비가 없는만큼 그에 대하야 무어라 말할수 없습니다。 운운



超滿員일은劇研公演 (府民館에서) (日曜연출間 午後一時 夜間七時半)

百圓紙幣十枚를 찢어버린怪豪漢

헌新聞紙를 絹絲로 팔고서 國境넘다犯跡감추고저

【신의주】 정신목동한사람으로서 一百원짜리 지전지폐를 자그만치 열장이나 찢어 열차창밖으로 버린 돈에 굶주린 이세상에는 잇을法도 아니한 사나히가 잇엇다。

그러나 이는 호화한 풍류때문이든가 여자앞에서의 뽐내이노라고든 한 자랑이 아니라 알고보면 자기범죄를 감추고저한 고육(苦肉)의 책(策)이엇으니 이야기는 이러하다─

신의주부 북정五十八번지(新義州府北町五十八番地) 제사업(製絲業) 임겸가삼랑(林兼加三郞)(三七)은 실없폭락에 큰 손해를 보고 이를 만회하려고 三월중순 동현남포정 석정정사랑(石井定四郞)과 공모하고 헌신문지를 견사(絹絲)같아 포대에 너허서 신연(新延)、즐림 운송점을 속여 동점으로부터 하위체(荷爲替)七千八百五十四원을 진출시켜 석정정사랑에게 맡동하엿다。

석정은 이 하위체를 취인은행인 오천정 영강(永岡)은행지점에 가지고 가서 현금과 바꾼후 범행발각이 두려우므로 대판(大阪)으로 도망갓다가 석정과 동분하여가지고 종교방면에 도주하야 四千여원가지고 대판으로부터 만주 신경(新京)카지의 차표를 사가지고 이달 六일 북행열차로 국경을 통과하려는중 이동경찰반의 날카로운 눈에 띠이게되매 이를 알게된 임겸은 지전一백원짜리十매를 찢어 창밖으로 버린것이 없에잇은 승객의 눈에 띠이어 이말이 이동반의 귀에 들어가 즉시 그를 신의주에서 하차시켜 취조한 결과 그는 이동반에게 거금휴대가 의심받음것을 두려워하야 전기 一千원의 지폐를 찢기와 동시에 영강은행 예금통장과 수표첩과개를 버린것까지 자백하엿다。

그러고 동인은 十일 중신의주법원(法院)경부보의 호송으로 신의주경찰에 인도되엇다。

★그날그날★

(陰)四月十二日(日曜日)

(陰三月二十一日甲子)

日出前 六、〇三 月入後 七、〇五
月出前 一一、三 月入後 八、五五

	滿潮	
仁川	前八、〇〇	後八、〇〇
鎭南浦	前一一、四〇	後一一、五〇
釜山	前一一、五〇	後一一、四〇

學齡超過兒童위해 永明學校新設

城北町有志의發起

부내 성북정(城北町)의 유지들은 동리에 학령초과아동이 만히 잇으나 그들은 배울길이 없어 가두에서 방황하고잇는것을 유감으로생각하든 남어지에 이지음 학령초과아동의 교육을 본위로하는 영명학원(永明學院)을 창설하엿다。

그리하야 이미 五十여명의 입학지원자도 잇게되엇으므로 十일에는 동학원 개원식(開院式)을거행하는 동시에 직원까지 선거하엿다하는데 그결과 이의석(李義錫)씨는 원장에 취임하게되고 이춘감(李春甘)、유일(劉鎰)、김상욱(金祥旭)、이희철(李熙哲)등제씨는 직원으로 취임하게되엇다는바 전기 제씨는 전부가 무보수(無報酬)로 동학원을 위하야 힘쓰기로 되엇다 한다。

酒造量은七萬九千石! 稅金은六十八萬圓

前年보다五千石、七萬圓增加

遊興의都市·京城의一面相

술과 기생은 오늘날 서울의 명물(名物)로 되어잇다。 해마다 서울에서 늘어가는것이 술의 소비량(消費量)이요 흥하는 홍등하(紅燈下)에 나타는 남자의 수효만이 늘어가고잇다。 이제 서울안에서 매년소비되는 주량(酒量)의 一면을 엿어보기위하야 경성부에서 조사한바 주조량(酒造量)과 주세액(酒稅額)을 살피어보기로 하자。

경성부 세무과(稅務課)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작년도에 서울에 나타난 주조량은 일본주(日本酒)나 서양주(西洋酒)가 八千七百四十八석에 달하야 그세액은 二十四萬六千三百四원二十一전에 달햇으며 조선주(朝鮮酒)는 七萬八百六十五석에 달하야 그세액은 四十三萬三千七百九十二원九十二전에달하엿다는바 그합계는 실로 주조량이 七萬九千六百十三석에 달하엿고 그세액이 六十八萬十四원十二전에 달하엿다 한다。

이것을 주종별(酒種別)로보면 다음과같다。

酒種	石數	稅額
淸酒	[illegible]	[illegible]
黃酒	九	[illegible]
葡萄酒	三	[illegible]
燒酒	[illegible]	[illegible]
우이스키	二	[illegible]
부란데	四	[illegible]
濁酒	[illegible]	[illegible]
藥酒	[illegible]	[illegible]
合計	七九、六一三	六八〇、〇一四圓一二

이것을 전년도의 주조장七萬四千四百八十五석과 주세액 六十萬四千八百四十九원六十九전에비하면 작년도에는 주조장에잇어五千一百二十八석 주세액에잇어 七萬五千一百六十四원四十四전이 증가하엿는데 [illegible] 一면이 어느방면에편중되어잇는가를 족히짐작할수잇을것이라한다。

오늘의天氣

흐렷다개엇다합니다

日曜講話

▲宗橋敎會
(낮) 復活의宗敎 申公淑氏
(밤) 失物을찾아 申公淑氏

▲貞松敎會
(낮) 心靈의復活 沈明燮牧師
(밤) 復活의感激 洪秉璇氏

▲貞洞敎會
(낮) 異常수없는의인의생명 김종우목사
(밤) 未定 鄭南水牧師

▲石橋敎會
(낮) 生命의復活 朴淵瑞氏
(밤) 體質의復活 朴淵瑞氏

▲中央敎會
(낮) 耶穌復活에對하야 梁柱三博士
(밤) 未定 金鎭浩牧師

▲南大門外敎會
(낮) 復活의生命 金英珠牧師
(밤) 復活의消息 金英珠牧師

▲復活社講堂 午前十時半
基督敎信仰의基盤 金敎臣氏

▲尙洞敎會
(낮) 復活 吳澤煥牧師
(밤) 勝利한예수 朴來哲氏

藥先送 服藥後 代金支拂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強筋強骨借力 平生無病健康長壽

補腎·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 百補不老還少年仙藥

百補丸

(壹萬劑限一劑式)

代金全額後拂

不老長壽、強精回春

●百補丸은 東西洋補藥中最極上 第一完全 第一조흔 絕對特上効力신기합니다

氣力이 活潑하여지고 早○가完全히낫고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이없어지고 腎氣不足이나 腎水不足이니하는 생각은 꿈에도 아니하게되며 補全身 百補하야 生理的으로 完全히 年이되고 不老長壽케되니 이에서 더조흔補藥이 어데잇읍니까 當分間 藥先送하고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하오니 이藥의 効力을 疑心할餘地가 秋毫만치도 없으실것입니다 只今곳注文하시요

人生에急大問題

●나무가 마르려고할때에 肥料와 물을 주지아니하면 그나무가 여떠케됩니가

●사람이 性慾이솟고 氣力이없고 勇氣가 나지아니하는때에 조흔補藥을 아니쓰면 마르려는 나무에 물아니준것가치 悲慘하게 됩니다

百補丸의 藥效는 左와如히 참굉장합니다

藥效가 廣告와 달르면 代金을 送金치 마시요

●代金全額後拂販賣를하나 藥効의偉大確實最極上은不問可知

第一、第一、정말第一조흔 補藥인故로藥先送하고代金後拂約束으로 販賣하고잇읍니다

그러나 이藥의効力이얼마나確實한지는諸氏도不問可知일것이올시다

●性慾이減退한사람
●手足과下焦가恒常濕冷한사람
●消化不良한사람
●恒常氣力이없고
●活氣가적은사람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症狀이오니 一日速히 第一完全하고第一조흔 補藥 百補丸을 服用하시와 更少年이되시요

代金後拂

後拂注文法

普通注文法

普通注文人께特典

京城府堅志洞(六八) (前中央日報社跡)

平和堂藥品部

株式會社 平和堂

社說

低金利時代의 矛盾된 現象

私的·社會的利益과 背馳

國府、三年計劃으로 一千萬國民軍養成

日蘇開戰되면中國은戰場이된다고 全國主要港에要塞도築造

【上海九日發電】

◇獨軍라인進軍光景

新羅修攘의蹟 (六)

□□□ 鄭寅普

三、海防考略

朝鮮의얼 第二十五 (211)

佛蘇兩國間에 十億法借欵交涉

極東軍備에使用次로 ◇日本當局은事態를注目中

【東京電話】

米國稅制解說

直接稅와間接稅等

◇最近傾向

◇大戰以後

◇大戰以前

◇減收理由

個人所得稅	七%
法人所得稅	八%
酒稅	六%
煙草稅	六%
製造稅	七%
加工稅	五%
消費稅	五%
關稅	三%
相續及贈與稅	四%
其他	
借金	四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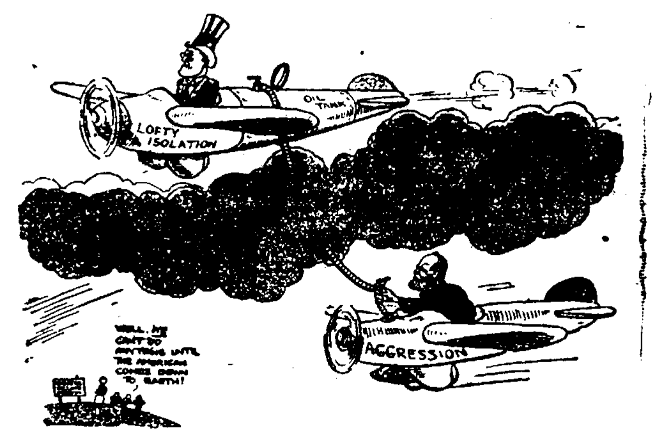
經濟力의動員

大阪朝日經濟面所載

重要 / 日本 / 壓迫 / 記錄 / 輸出

中繼放送

漫畵世界



石油制裁를하대도 米國은〃中立〃구름우에

—米國、빨리내려오기를기다리면서참을뿐—

內外綠燈

伊에의紛爭에 土耳其漁業

【이스탄불發同盟】

蘇聯新聞에 廣告欄出現

【莫斯科發同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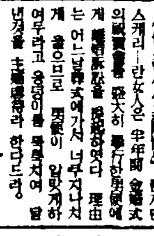
主婦虐待法에 우름달래는것도

【샌프란시스코發同盟】

裸女詩人에罰金

【巴里發同盟】

조흔家庭工業 最高의社會貢獻을하는 大事業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합니다 돈버리
第一 第二 株式會社



グリコ 가게앞에 모도 서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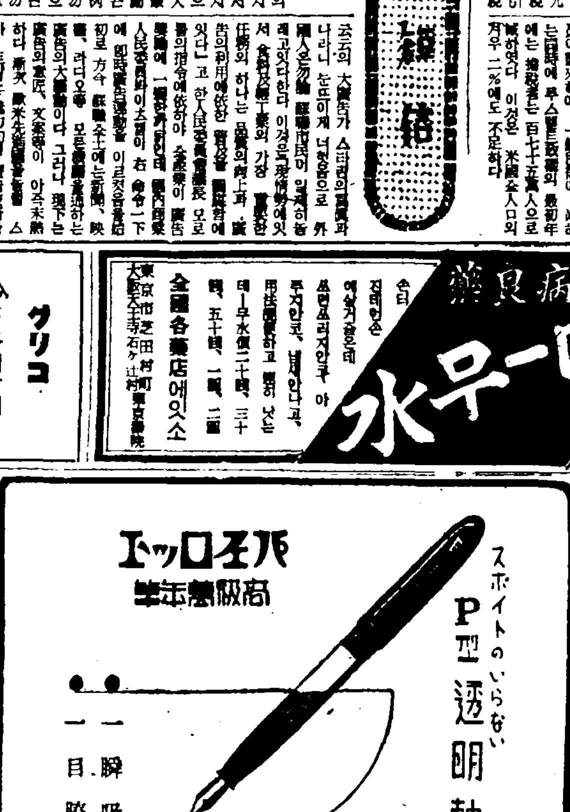
皮膚病良藥 데-무水
全國各藥店에잇소

效力本位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猪突猛進 中山七里 水泳女人國

若草映畫劇場
武俠一代 ラヂオの女王 ドン・ファン

パイロット萬年筆 特約店 楠商店



芳香原料 化粧品、飲料水、菓子、洋酒、製藥、殺蟲、各種用
染料、無害色素一般
佛國ローチエフィス香料會社代理店 東華洋行

特別大景品 無代進呈 水晶認印
發賣所 積文堂特賣部

漢和辭典の大亂賣 大景品つき半額提供
定價の一圓五十錢で投賣
特製豪華版 漢和大辭典
御註文の案內

中央劇場
孤島의悲歌 處女行進曲 바라에티
娘娘座公演

地方論壇

汚穢物處置問題

松汀里 一記者

衛生問題가 人間生活에 얼마나한 重大問題인가는 새삼스럽게 말할必要도 없을 만큼 누구나 느끼지 아니할것이다. 더구나 많은 사람이 集團을 이루고 사는 都市에 있어서는 衛生에 關하야 特別한 關心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될것도 또한 이미 아는 事實이다. 그러기에 特別한 衛生機關이 있어서 그 事務를 積極的으로 取扱하는것이다.

그러면 衛生上으로본 우리 松汀里는 어떠한가 너무나 寒心하다 아니할 수 없다. 衛生에 對한 不便을 느끼게된다. 이에 가장 不滿하야 衛生上으로 보아 하로 바삐 改善할 問題 몇가지를 적어 當局의 注意를 促하려한다.

첫째 停車場附近에서 本町通까지는 掃除人夫가 있어 每日 掃除를 하니 그다지 汚物은 쌓이지 아니하엿으나 每日 數十回式 往來하는 自動車貨物車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몬지는 마치 千兵萬馬의 뛰놀던 戰場과도 같아서 文字그대로 眼界를 가리울 地境이다. 더구나 봄철에 바람조차 甚하게 부는 날에는 더 말할수가 없다. 數千住民의 衛生上 重大한 問題가 아니고 무엇이랴? 뿐만아니라 將來하는 自動車의 激增은 이 問題를 더 말할 수가 없으니 이 또한 얼마나한 不便이냐? 이에 對한 住民의 不平은 昨今부터가 아니고 벌서 數年前부터 발생이되어왔든것이다.

또 그 둘째에 있어서는 市街로 나가는 道路에 掃除는 姑捨하고 길가에다가 거름을 싸아두고 糞尿를 부어노니 그 惡臭가 振動하야 마치 便所에나 들어가는것같은 感이 잇으며 군데군데에다 재(灰)를 싸두어서 바람만 불어도 四方으로 날너 通行人의 呼吸을 괴로웁게 하니 이어찌 數千住民이 사는 都市라고 할것이냐?

그다음에는 道路問題는 아니나 亦是衛生上으로 보아서 重大한 問題이다. 即 松汀里中央을 뚫고흐르는 [illegible]에는 가진汚物과 [illegible]을 버리어서 停滯되어 腐敗하는데다 [illegible] 이요 장날(市日)에는 그물에 米, 野菜, 국수등을 씻처서 飲食物을 만들어 팔고 잇으니 이것은 衛生上問題라는니 보다도 人道에 關한 問題라 할수있다.

이外에도 衛生上으로 본다면 여러가지 不快한 點이 만흐나 于先 以上에 말한 몇가지를 [illegible]라고 하겠다. 그러면 그 對策은 어떠할것인가? 勿論 一般住民이 衛生觀念을 좀 더 徹底히 認識하야서 스스로 改善하여야 할것은 再論할必要도 없는바이지마는 當局으로서는 一層더 [illegible]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것이다.

◇ ◇

大邱飛行場設置에 又復大難關에逢着

에산도안잇는格納庫問題化

經費辦出의道理漠然

格納庫와事務所經費 約七、八萬圓所要

空輸會社서도支出困難

【대구】작보=대구비행장 설치문제가 부외동촌(東村)으로 결정되어 방금 용지매수에 노력중으로 토지를 진행하고잇으며 一천명의 소작인문제가 당국의 머리를 앞게하고 잇거니와 이에 또하나의 예산면에 대한 큰난관에 봉착하여 잇다는데 즉 비행장설치후의 격납고(格納庫)문제가 그것이라고 한다.

최초에 총비행장은 단순한착륙장으로만 예산을세운것이고 사무소는 현재울산(蔚山)의것을 옮겨오면 된다는것이엇는데 비행장실시에 당하야 비행장으로서의 완비를 하려면 예비기(豫備機)三、四대를 장치할 격납고가 없으면 안될형편으로 된것이라한다.

처래 이비행장은 일본공수회사(空輸會社)가 전용하는것으로 당연히 동회사에서 설비하리라고 기대하야 부에서는 전연예산에 넣지 않었든 것이었는데 이제와서야 당해의 기모에 당하야 방금 [illegible] 경정으로 간기회에 관계가 방면과 협의중인데 중산한 해결책이 없는 모양이라고 한다.

며 사무소도 역시 울산의 것을 여기까지 이전한다는데는 운반비가 타경비가 오히려 새로히 세우는것보다 만흥리라는바 전후를 합한 七、八萬원의 새경비가 어디서나올지 모르는 一대난관에 처하여 잇다고 한다.

松枝에도新芽 一店村湧江水泳場所見

鑛夫墜落即死

清州岩城金鑛서

【청안】지난달 二十三일 청주군북이면(北二面) 암성금광(岩城金鑛)에서는 광부들이 떠러저서 작업중이든인부일명이 즉사하엿다는바 자세한 내용인즉 청주군북이면대길리(大吉里) 장수복(張壽福)(二○)으로 지하五十척이나되는 고은광혈내에서 일을하엿고 한동리 장기을(張奇乞) 장창순(張昌淳)등 무게오판이되는 돌덩이로 몸을 달리불리며 툰중 등이三十여척을 나려가을때 연히 목욕단고리가 버서저서 등이떠러젓으므로 큰안에서 일하든 전기장수복은 두부를받어 즉사하엿으며 이급보를 받은 북이주재소에서는 현장에서 사실을 조사한후 전기장기을과 장창순을 과실치사로 청주경찰서에 체포취송하엿다고 한다.

仁川市內外에 空前의土地景氣

築港擴張、水仁鐵道 敷設等으로

바락같이뛰어오른土價

【인천】인천 축항확장 대공사 진출 수인철도(水仁鐵道) 부설등이 동기되어 인천시내의 지가(地價)는 다대급이 등귀하야 공전의 토지경기를 내이고 토지매매가 빈번하던 중 최근 부외(府外)로 매치여 수인철도연변의 지가가 또오르기 시작하엿다. 수인철도연변인 부외 남동면 고잔리 남동리(南洞里) 등은 시가 장래유망하야 철도가 일본내지인의 유수한 재벌이 손이 움직이여 [illegible] 중심으로 암암리에 토지 매수가 맹렬하다 한다.

선정중이여서 지가오 진해관(鎭海館) [illegible] 학익(鶴翼) 주안(朱安) 등 명승고적 탐승단을 모집한다함은 본보에 기보한바 어니와 금년은 기후관계로 벚꽃의 만개가 예년보다 늦어 五월 연기하여 四월二十일 오전九시四十三분 점순역발 열차로 떠난다 한다.

山監을刺傷

나무하든樵童

【청안】위한당국에서 보림만을 편중하는 一편에는 농촌의 연료궁핍의 불안에서 여엇는 현실에잇어 청주군하에서는 이로인하야 유혈까지 연출된사실이잇다 그자세

群山第二市場

開市는廿一日

【군산】군산부의 제二시장인 신산정시장은 그동안 건축공사중이든바 최근완료되어 오는二十一일부터 개시케되엇는데 사용신청자가 점포(店舖)수보다 一백十八인의 증가를 보게되엇으므로 부에서는 지난十一일에 추첨으로써 결정하엿다 한다.

觀櫻團出發延期

【정읍】본보정읍지국(古阜支局)과 정읍 [illegible]

大群山의前提條件으로 水源地探索에沒頭

대공장유치와 상수도등으로

技師派遣하야鑿井試驗

【군산】미곡도시(米穀都市)에서 공업도시(工業都市)로 비약하려는 군산에 잇서서 그의 발전에 지대되는 공업용수(工業用水)문제이다. 아니 그보다 급한 문제는 음료수문제인데 군산부당국은 이에 대하야 고심하든바 잇다는바 군산부상수도는 천연의 저수도 약간잇으나 대부분은 옥구수리조합(沃溝水利組合)의 물을 써서 그물 수원지에 저수하야 그것으로 四만부민에게 공급하여 왓는데 자년이래로 계속된 미증유의 한발로 인하야 군산부 수원지에 줄것은 고사하고 자기 조합몽리구역에 대한 관개도 부족을 보게되어 열리(烈里)、완주군 삼례(參禮) 三개소의 착정(鑿井)을 시험중에 잇다는바 다행히 그의성공을 보게된다면 몽조합은 물론 군산부의 상수도 급수문제에 천만해결을 보리라 한다.

慶北道水產製造高

二百九十餘萬圓

전년보다약四十만원이증가

水產加工의傾向顯著

【대구】작十년도 경북 동해안(東海岸)을 중심한 수산제조고(水產製造高)는 총액이 二백八十九만 一천九백八十五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四十二만 六천 八十七원의 증가를 보이고잇다고 한다. 수산어획고는 전년보다 약二만원의 감소를 보이고잇는데 반하야 수산제조고는 도리어 다액의 증가를 올리는것은 최근에와서 동연안의 어업가들이 수산가공에 전력을 기우리고잇는 현상이라고 한다.

益山小作爭議

이달발서四十건

【이리】전북익산(益山)군하에는 타군보다 대농장이 집중하여 잇으나 소작쟁의는 비교적적은 편이엇으나 금년에 들어서는 의외로 작권의 이동이 심하게 되어 一월이래 三월까지 발생된비가 이미 四十건에 달하엿음에도 불구하고 금월에 들어서는 반달에도 밧서 二十五건이상에 달하야 관계당국으로하야금 크게 주목을 일케하는상태에아라는바 대개는 토지매매의 이동에 말으는 다고 한다.

洛江에大風 木船이顚覆

正租三百石을流失

【구포】지난九일 오후三시반경 구포낙동강선창(船艙)에 도착할예정인 당지 김진곤(金晉坤)의 소유인 나락(正租)운반용목선二척이 큰 바람에 이기지못하야 약一키로메돌 하류에 흘러내려가서 겨우정지 되엇는바 二척은 전복(顚覆)되어 침몰하엿는데 그손해는 약五천원이라한다.

許可없이賣藥

【개성】본적과 현주소를 개성부경정(府京町)二四八의一六번지에 둔 인삼업자 김봉오(金奉五)(二一)란 청년은 작년九월경부터 허가도없이 로 팔앗을뿐외라 금년二월상순부터는 하야제 황정、하수오、홍화、부자(黃精、何首烏、紅花、附子)등을 일본내지방면으로 통신판매를 하여왓으므로 서에서는 증거약품을압수하는동시에 전기 김봉오도 인치하여다가 엄중취조중이라 한다.

裡里에設置運動

簡保의健康相談所

지리상으로당연하다하야 遞信局에陳情書提出

【이리】체신당국에서는 금년도 간이생명보험의 무료건강상담소(健康相談所) 一개소를 전북도내에 설치하기로 되엇다한다. 이내용을 알게된 전북각지에서는 그설치를 운동이 암암리에 전개하야 맹렬한 활동을 개시한 모양이라는데 현재간이생명보험의 가입자수를 본다면 군산(群山)국관하에 약一만명, 전주(全州)국관하에 약 八천명, 이리(裡里)국관하에 약五천명의 수자로서 인구의비례로 보아서도 이리가 도리어 최고위를 점령할뿐아니라 지역적관계로 보아서 단연 중앙의 위치를 점하고 잇으니 이리에 설치함이 당연하다하야 각방면에서는 수자적에중을 열거하야 체신당국에 진정하기로 하엿다 한다.

裡里雨量不足

【이리】지난 八일 석양부터내리는 비는 九일오후까지 내린바 이리부근의 강우량은 약五十미리에 달하야 오랫동안 한발에 부닥기든 농가도 겨우 수미를 펴게되엇고 각저수지에도 상당히 충수되어 금춘의 모자리물은 걱정없으리라 하야 一반이 안심하는 형편이나 작년동한으로 인한 맥작(麥作)에는 비가오히려 늦어서 별로히 이로울것이 없고 익산(益山)군하는 예년에비하야 맥작면적이 증가한데 반하야 약三할五분이상의 감수가 잇으리라하야 빈농층의 一대협위가 되어잇다고 한다.

少年少女童話

【개성】개성 고려청년회 소년부에서는 오는 二十九일 오후七시반부터 소년소녀 현상동화대회를 개최한다는데 연사신청기일은 二十三일까지이며 시상은 남녀각 一二三등까지 라고하니 다수히 신청자가 잇기를 바란다고 한다.

女教員戲弄타

빰맞은校長

그리고辭職書써줘

【순창】전남 곡성옥과(谷城玉果)공립보통학교 교장 소천장부(小泉丈夫)(三○)씨는 동교 여자훈도 신영옥(申英玉)(假名)씨에게 지난 一월八일에 사직서(辭職書)를 제출한사실이잇어 세상사람으로 하여금 주목을 끌고잇는일이 잇다. 이제 사직서의 전말을 보건대 一월二일은 신정휴가되어 학교의 선생들은 각기 자기집에서 도라오지 안코 신영옥여선생만이 사무실에 안고 입직을 보고잇는바 때마츰 교장이 여직원에게 달려들어 목을 안고 사무실과 연결된 낭하(廊下)로 도망질하엿으나 또 쪼차와서붓들고 야행을 하려하는것을 뿌리치는데 마침 소사(小使)가 들어옴으로써 봉변은 모면하엿다. 이틀뒤 그의부친은 一월九일에 학교에 쪼차가서 너같은놈은 교육자의 자격이업다 하고 뺨을 몃개나 치고 다시 교육계에 나오지 말라고 하자 교장은 잘못하엿다고 사과하고 사직서를 써주엇다 한다. 그리면 교장선생은 발하되 자기가 그때 술을먹고한것이니 용서하여주기를 바란다고 하엿다.

開豐郡에늑대 小兒를殺害

◇밤중에 똥누러나간 애를

翌日에骸骨만發見

【개성】지난 八일 개풍군 남면 창릉리 봉선동(昌陵里鳳仙洞)에는 밤十一시반경에 한마리의 큰 늑대가 출현하야 동리 뒤ㅅ간에 나갓든 六세의 어린아이를 물어다가 잠깐동안에 잡아먹고 뼈만 여기저기 흘러노코 어디로인지 다라나 버린 무서운 사실이 생겻다. 그자세한 사실인즉 전기동리에 사는 박봉수(朴奉秀)의 三남인데 동인은 그시반경에 밤을 누러 고나왓다가 오래도록 뒤ㅅ간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어머니되는 사람이 수상하게 생각하고 변소에 나가본즉 흔적이 없어젓으므로 대경하야 전동리를 따른이웃이 켜가지고 동리근방으로 어린아이의간 곳을찾다가 안산에서 어린아이의다리하나를 발견하고 논두렁에서는 피무든 해골을 찾어냇다는데 이것을 미루어 늑대의소행이 틀림이 없다고한다.

高敞高普에 五百圓喜捨

【고창】전북고창군(高敞郡)인 중의힘으로 세운 재단법인 고창고등보통학교(高敞高普)는 설립근二十년간에 조선청년 수재의수백명의 졸업생을 양성하여내엇는데 동교는 원래 재원빈약으로 五학급제인가인 만큼 매년신입하기면 三四百명씩의 지원자중에 교실관계로 단지 五六十명밖에 수용을못하여 매년마다 무한한유감중에 동교리사 평의원측에서는 최후용단을 다하여 빈약한예산중에서 무리한 연출을하여 약二만원예산으로 동교 교실증축 공사를 착수하엿다는데 동도 순창군순창면 순화리(淳化里) 김영무(金英武)씨는 지난六일 현금五百원을 동교로 부송하여 약소한돈이나마 증축비에 보용하여달라고한다.

窃盜團送致

【경성】부내 림정(林町) 민계세(閔啓世)(二一)와 동정 이청룡(李青龍)(二一)은 시가 二백여원의 동선(銅線)을 훔치고 영등포서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다가 十一일 검사국에 송치되엿다고 한다.

消息

◇小島多市郎氏(天川警察署長) 新任人事次去九日本社天川支局來訪

◇朴洪氏(忠北道警察技手) 天川部來人事次去九日本社天川支局來訪

◇仁保孝太郎氏(竹山公普訓導) 江華公普校長 榮轉人事次 本社竹山支局來訪

◇福島熊太郎氏(竹山公普校長) 退職人事次 同上

◇加治木卯郎氏(竹山公普校長) 赴任人事次 同上

◇吉田勝雷氏(竹山公普訓導) 赴任人事次 同上

漫書

裡里 飛行場이完成되어 大邱, 麗水도 從此로連絡할計劃。

● 光陽 普校人事에 戶籍抄本僞造가 綻露로 탈성。

● 開城 府議十(名)은 先進都市視察次 十三日出發豫定。

● 群山 群山府廳의 「싸이렌」도 봄바람에 골나든지 五日 十分이나 빨른때가있어 市民은 不平. 이 發端

密林 (130)

金末峯 作 鄭玄雄 畵

봄 八

련숙은 지난가을 동섭과 자경의 약혼발표를하는저녁 자경의초대를받아 안엽과가치오고 이번이 처음이다.

이숙하게화장을하엿건만 련숙의의복이 눈이띄이게 가난다케된것이라든지 한편무릅을 끼지로안고

련숙은 양복벗엇파같이런 집욱 색비단양말을 신은 두다리를 어린에처럼 흔들흔들한다.

「그래 안엽씨도간다지?」

「응」

「그인 연구하러가는세인가 그보다도 엄바래다주러가는것 안야?」

「글세 두가지의 의미가 다들어잇는지도 몰르지」

「얘 너의집에서 잘도 허락을하섯구나」

「그럼 내가 한다는데 누가어쩔라구 얘햇! 호호」

「호호호 저러니까 계집애는 공부를 못시킨다는거야 너나 한것없이 모두 제고집대로만 살려더니 부모님들이는 할것이야? 호호호」

련숙은 차를들어 한목음마시면서

잇는 두손이 노다케수척해진것을 자경은 이상스럽게 건너다보고 잇는것이다.

「얘 너어데 알엇니? 얼골이 좀 상햇는걸……」

「아니 호호호」

련숙은 일순간 화끈달아진 뺨을 두손으로 싸면서

「몃일 감기로 알아누엇더니 얼골이 빠젓서」

「그사이 그림공부는 늘게속햇다지?」

「응 모델노릇도해주고 호호」

「다들 갈자지뭐야 누가 자식을 나코햇나? 정말야 난이커 참 세상에 태어난것이 여간 원망스럽지가 안허요」

고개를 떨어트리더니 감작히 련숙은 근심스러운빛이

「가것말지」

「얘 자경아 난이번에 동경유학가면 조선은 영하직이다」

「아아 정말이야 난이 좁다란 조선이 싫여젓단다. 동경가서 얼마잇어보고 거기서도 싫기실호면 이태리나 불란스로 갈테다」

「웅 조쿠나 시의나라 예술의나라 남칼자도 조쿠나 그리다가 너일비만나겟구나 호호호」

「아니게 아니라 음비에게서 크리스마스에 엽서를 보냇더라 바로 스이스에 보낸것이여」

「그래 너하비는? 실레더만」

자경은 련숙의집안 형편을 짐작하는이만큼 걱코 련숙의 하비는 안엽이 대여 주는것이 아닌가 생각한까닭이다.

련숙은 그대답은 아니하고 현대를열면서

「이게바로 그엽서야 음비가보낸것이야」

「호- 이게 스이스경치로구나」

「응!」

자경은 눈앞에 견해은 배창화이 수집는듯이 웃고섯든듯 하여 가늑게 한숨을 쉬고

「세상일은 알수가 없는거야」

「너도 인제 내가하란만하면 잘 자경을것이다 호호」

련숙은 생글생글 웃는다.

「무언데?」

「무어던지……」

「내다 알어요 너 안엽씨와 연애하지며야 호호」

「…… 호호 어떠케 아니?」

「그런 정말이로구나 얘 안엽씨에게 안해잇는줄 알지?」

「웅 아무까지 잇지?」

련숙은 천연스럽게 대답을하고는 씀이 웃는다

「아들이 잇거나 안해가 잇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잇니」

련숙은 입으로 화비담을 불며서 연기를 끄내여 입첨을 고치는 것이다. 마치

「불과 한겨울동안 이러케 변하다니……」

자경은 놀른 얼굴에서 술러 떠러지는것처럼 놀래엇다. 그는 표의를 가지고 련숙에게로 바싹 닥어 앉이며 목소리를 나초아 가지고

「얘 그래 너 그 안가녀서의 첩이돼도 조탄말이지? 정신이 잇나 없니」

「호호호 예송없다 첩이 무어나 예인이지」

「큰일낫구나 얘 그러케까지 깊이 들어갓니? 옹련숙아」

「내그녀서 그저새끼같은녀서 무슨이름을 저음늘줄을 알앗서…… 기어히 너 약시햇지?」 련숙인

「아즉은 확실힌 몰라 의사에게 진찰해 보지안엇으니까 호호」

자경은 어이가없는듯이 련숙을 빤히드려다보앗으나 련숙은 꼳장 생글생글웃으며

「안엽씨가 인제정식으로 안해를 리혼수속을한대서」

「듣기싫어요」

「얘 넌너무도 인습적(因襲的)이다 사랑하는사람끼리 결합하는것이 무엇이 죄냐?」

「글세 안해가잇다는것보다도 자식이잇다는것보다도 왜 하필그 못난안엽이를 택하엿느냐 말이다 난 나와전교다 오남부터」

련숙은 손가락을 똑딱절르고 앉어잇더니

「러브이쓰 블라인 (사랑은소경이다)」

한마디하고 밤다이러서면서

「아무리 잘났기로니 강우에만 드러앉어스면 멀해 이부첩에 호호」

히스테리칼하게 웃고

「그럼기태안경이려시오 소인은 러갑니다」

자경은 련숙이가 현관문을열고나갈동안 자리에서 끔작하지안코그대로앉어잇엇다 이욕고

「저러케까지 변할수가잇슬가」

하고 자경은 두손으로 머리를잡고엎드렷다

健康

자랑하라

强健

疲勞와결림과痛症等 健康의障害物을除去함은늘强健을자랑케되는捷徑이외다 故로簡便하고有効하고好評을받는家庭常備藥妙布를잊지마시고!

主効

肩膝의결림
류마티스
打撲傷
神經痛
過勞痛
젓멍울
筋肉痛
胸咽喉痛

地方論壇
教育機關擴張을 絕叫

新義州에서는 이번 新入生의 ... 어려할지 不滿한 ... 에 또다시 三百으로 넘어 보지못할바이엇다. 이러한 不滿한 學童들이 ... 文化的이나마 ... 入學難 ... 四, 五學年에 補缺生 合 十二名 募集에 勿論 志願者 一百十五名 ... 에 九倍以上 十名에 許하니 初等教育에잇어서 ... 은 ... 이다. 우리 新義州 ... 期待하는바이다. 그리하야 自己 ... 經費로 新設有志諸氏에게 一言을 ... 하노니 ... 이 教育問題는 우리의 第二世國民을 ... 是正하는 ... 이다.

火力發電을 前提로 第二變電所新設
十八萬府民의 公營機關固守
平壤府電問題持久戰에

【평양】 오늘 十八만부민의 이익을 위한 수리전기의 직접 매점요(要)로 말미암아 현재 유정 ... 하야 最近 府電의 ... 평양부전기는 ... 第一, 第二 ... 電氣局 ... 평양부의 ... 화력발전소를 ... 인식하게되엇스나 ... 아직 제휴치 안코 ... 매서리고잇는 고가수 ... 노당되어 일이 이러케 되엇다한다.

定州 ... 獐川江下流에
排水門設置決定
二千餘町步에 被害가 만튼
廿年間의 懸案解決

◇…지난八일오전五시경 장경 ... 貯水池 ... 漏水 ... 二十餘年來 ...

學界에 喜消息種種

私財를기우려 農士學校設立
今月二十日부터 開校
嶺美金壽長氏特志

【신의주】 경의선 영미(嶺美)장은 김수장(金壽長)씨는 일찌부터 조선농촌의 갱생에는 농촌지도의 ... 농업보습학교정도의 ... 금석산농사학교(金石山農士學校)라 ... 개교하게 되엇다. ... 十七학급의 ... 一만五천평을 ... 선생은 당분간 三명으로 ...

東昌學院增築
義捐金이 遝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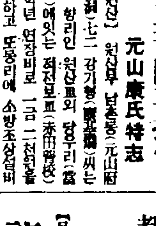
【문천】 함경선 천내리(川內里)에 ... 동창학원(東昌學院)은 十여년전에 창립된이래 재정의 곤난과 싸워가며 근근히 지금까지 二三十명의 어린아동들을 ... 의연금이 속속답지한다. ...

東新學院改築

【정주】 연향구룡도면 ... 동신학원(東新學院)은 금년 ... 四주년을 마지하엿는바 ...

青山幼園新築費로 千五百圓을 喜捨
義州尹瑞信女史美擧

【의주】 ... 청산유치원(青山幼稚園)에서 ... 신축기공 ... 에거주하는 윤서신(尹瑞信)씨는 소유토지 ... 三천 六백八十표(?) ... 를 여러유지의 원조로 작년 가을부터 시작하야 ...



赤田普校에 二千圓喜捨
元山康氏特志

【원산】 원산부 남산동(元山府南村洞) 七二 강기형(康基亨)씨는 자기 ... 적전보교(赤田普校)에 ... 二천원을 희사하엿다는바 ...

都草公普에 校地를寄贈
趙金雨氏의篤志

【문천】 함남문천군 도초공보 ... 평 시가千五百원이넘는것을 금번 신축사업에 쓰라고 보내엇슴으로 유지원당국에서는 ... 감사한다고한다. (사진은윤여사)

龍井產業學院 院舍寄宿舍新築
工事費 二千圓으로着工
異域同胞들의 熱誠

【용정】 용정산업학원(龍井產業學院)에서는 원장최두남(崔斗南)씨이하여러선생이 ... 하게 한는동시에 원사기숙사 ... 二천여원의 경비로서 ... 지난八일부터 착공하여 ... 에 불편한점이 업게하다고한다.

平壤JBBK 放送을開始
順序에 平壤邑高調

【평양】 수개월동안 준비중에 잇던 평양방송국(平壤放送局)에서는 ... 이십일오후 六시부터 방송을개시 ... 하엿다. ...

道路, 下水溝不備
朝鮮人街에 水亂
原因은差別施設에잇다고
元山府에 非難聲漸高

【원산】 원산에 제一대도시로 도로시설급 하수구시설이 ... 원산부(元山府)이남인 조선인촌 ... 수일간 ... 비가오면 ... 서 이러한 현상이 잇서 一반 ...

우물가의물도래하는婦女 高原郡所見

基督講演會
平壤서八日間

【평양】 부내장대현(章臺峴)기독교청년회에서는 오는十二일부터 十九일까지 ... 연회를 개최하겟다한다. 연사는 채필근(蔡弼近)목사로 오는十二일부터 ... 시부터 시작할터이라고한다.

日割及演題
▲十二日 人生과問題▲十三日 知識과信仰의問題▲十四日理想과實現의問題▲十五日 生과死의問題▲十六日 個人과社會의問題▲十七日 善과惡의問題▲十八日 天國과地獄의問題▲十九日 모든問題의解決

黑林江에서 二名이作魂

【함흥】 흑림 시내에서 두사 ...

宣川의 人口動態
出生이死亡보다만타

【선천】 작금 각방면으로 비약적발전을 하고잇는 선천(宣川)의 작년 一년간 인구동태를 살펴보면 출생자수는 남녀합 四百七十五명이오 사망자수는 남녀합 百六十五명으로 一百十명의 증가를 보여주고잇는데 이래 사망의 원인을 보면 호흡기병이 七十五명소화기병이 六十四명이라는 다수를 점하고 이것을 다시 연령별로따저보면 一세미만 一百二명 二세이하 五十二명으로 천진란만한어린이의 죽엄이 만타고한다. 그리고 작년중 원앙의쌍은 三十六건이오 파경은 四건으로 총배우수 三千五百十一명에 비하야 지극히 적음을 보여주엇다 ...

方峴에毒感

【방현】 평북 귀성군 방현면(龜城郡 方峴面)내에는 수일전부터 천연두가 창궐하야 경찰당국에서는 부면이나 종두를 시행하고잇는바 또 뜻하지 안흔 류행성독감(流行性感冒)이 창궐한다. 현재 방현시에만 수十명이신음중이라고 하는바 일반은 크게 우려중에 잇다고 한다.

【정주】 정주읍내강(獐川江)하류 ... 에 저수지(貯水池) 二十여년동안 상류에서 흘러나리는 사토(砂土)가 빠저나가지못한 관계로 연년히강바닥이높아저서 조금만비가오면 그 상류에잇는 二천여정보의 옥답이 전부이해(泥海)화하여 그 피해가막대함으로 벌서 十여년동안을두고 토사퇴수문(土砂退水門)설치를 진정하여 왓든바 지난九일에야 신의주토목과에서 설치하게된뜻을 군당국에전달하여왓다. 전도(田島)정주군수 서는진정위대표송원빈(宋元賓) 서병철(徐秉澈)등 十여인을 청하야 八개소의 완전철치를 연명하엿다. 이로써 二十년간의 현안이 해결된것이다.

鎭南浦에도 天然痘發生

【진남포】 진남포(鎭南浦)에서도 천연두환자가 발생. 지난 十일 오후二시경 룡지리(龍池里) 九○번지유변희(柳○○)가 병석에서 신음하고잇는것을 진남포경찰서원이 발견하고 즉시 룡지 도립의원(道立醫院)에 보내어 진찰을받게한결과 천연두환자로 확진이 되엇다한다.

그리하야 동의원에서는 전기환자를 격리병원에 수용하고 방금 치료중이며 진남포 경찰서에서는 환자의집 내외를 엄중소독하고부근一대에 검병조사(檢病調查)를 엄밀히 행하는 一방 임시종두(臨時種痘)를 시행한다고한다.

賣買手續에 말성으로 教友끼리 法廷서 亂鬪
◇平壤法院에展開된活劇
買主는 瀕死의重傷

血流의價歎

【평양】 부내 선교리 모교회 집사 박달종(朴達宗)씨와 그의 처남선종(鮮善)이 ... 인들에게 ... 中으로 ... 과계인들인 관계로 싸움은 ...

正租代二千圓 詐欺犯
安東縣에서被逮

【진남포】 벼갑으로 선금二천을받어가지고 고비원주하얏든 사기한이 마침내 체포되엇다. 평남용강군 지운면두락리(龍岡郡池雲面頭落里)三九二번지 김두현(金斗憲)은 지난 十二월 十八일에 진남포비석리 ... 리에 잇는 곡물상 광성상회 ... 를받어가지고 만주로 고비원주하여 ... 여자를 감추엇든바 지난五일안

永興에染病 死亡者가續出
現在患者도百餘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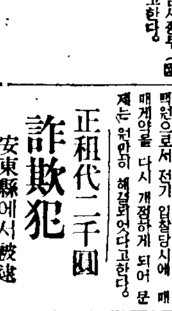
【영흥】 영흥군 억기면 삼기리 (永興郡憶岐面三岐里) 지방에는 근자 장질부사가 창궐하야 이미 방병한자가 백여명에 달한다하며 사망자도 벌서 四五명이나된다는데 동지방에는 어느집이나 환자가없는집은 하나도 업다는 현상이라고한다.

異域에 流浪群
昨年中에 二萬餘名
咸南對岸으로건너간 同胞들
年年히 增加하는이數字

【함흥】 잘살기 어려지고 수천년내로 은혜받든 이땅을 떠나는그들에게를 서러움과 눈물이없으라마는 감자밥 귀밀밥도 못먹고 어먹지못하는 배곱흔설움이 제一생고 눈물나는것이니 그러므로솜더여 꾀어 ... 이나 개척하여본다고 ... 함경남도 장백현(長白縣)내로 떠나가 살고잇는 조선동포가 작년중에만 三千八百여호에 二万二千여명에 달한다 ...

그런데 그들은 시가지근방에거주하는 극소수를제하고는 거이전부가 농촌에서 화전을 개척하야 농사를주로하고 잇으나 그들의대부분은 소작농의탐을벗지못하고 때로는 병화(兵火)에 시달려 생명 재산등을 약탈당하여가며 역경의 더욱 서러운 삶림을하고잇다고 한다.

金仁貞女史 讚賀會準備
오는十八日에開催코저
平壤女流社會事業家



【평양】 우리사업중에 유독히 빛나는 문화기관의 하나인 평양인정도서관(仁貞圖書館)을 오로지 여자의 한몸으로 十여만원의 거액을 들여 지금으로부터 약 五년전인 소화六년十二월에 부내창전리에 도서관을 세어노흔 부내 이문리(里門里)五二번지 김인정(金仁貞)여사는여사의그높고 깊은정신의구현이도서관설립에만 그치지안코 그외 사회적사업에도 만흔 원조를 가지지 안헛음뿐아니라 준추가 이미 고령에 달하엿다하나 아즉도 우리 사회를 위하여 여재와 정성을 바친 우리문화사업의자부로다이김인정여사를위로하자는 의향이 평양사회 유지간에 몸어 조만식(曺晩植)씨외 제씨의 발기로 동 여사 찬하회를 열기로하엿다한다.

시일장소는 오는 十八일오후三시 화신백화점(和信百貨店)식당 회비는 한사람에 一원五十전인바 누구나 참가할수잇어 당일오전중 ...

西閑面有林問題 圓滿히解決

【장연】 장연군 서한면 연유림지(西閑面有林地)입찰사건은거듭 분규(紛糾)를 이르키오든바 근일 완전한 해결을 지엇다는데 이제 자세한 사실을 알어보면 적수리 주민의 열로와 가옥건축용재가 업게되므로 적수리저수합소(赤水里貯水合所)에서 고려한다는바 서한면 당국과 협의하고 입찰자로부터 일부토지를 다시 매각하게 되엇다는데 그매매가격은 사백원으로서 전기 입찰당시에 매매계약을 다시 개정하게 되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엇다고한다.

【양시】 ... 기하여오든그동안 한탄치의 이자 불지불하여야만 어전동기에 날인하겟다하야 이에 어전종 필경 대결투까지보게 되엇이라 한다. 중상을 당한하씨는 죽어도 박도삼의 집에서 죽겟다하여 그곳에 운반하여잇고 가해자 三명은 어디로인지 자최를 감추엇다 한다.

金塊密輸犯

【신의주】 황해도 수안군 천곡면 평안리(遂安郡泉谷面平安里)三○一 김만업(金萬業)(一○)은 작년八월 금괴二백五十九몸매를 안동(安東)에 밀수출하야 二천八백三十四원에 판 사실이 발각되어 신의주경찰서에서는 동년 十一월 검거한 금괴七관 밀수출단의 一파로 인정하야 수배중 九일 부내 노송정(老松町)三정목 중앙(中央)여관에 유숙중을 체포하엿다고 한다.

▲府內寄贈書▲朝鮮中央日報▲朝鮮日報社平壤支局▲東亞日報社平壤支局

동현(安東縣)西번동에서 체포되어 용강경찰서(龍岡警察署)로 호송되엇다한다.

(사진은동여사)으로 참가자는 다음장소에등기할것이라한다.

慘! 冷害의餘毒
餓死, 凍死만百餘名
昨年中咸南의變死者七百五十
行旅死亡도大槪는營養不良

【함흥】 작년까지 연三년간이나 지루하게 계속되어 산지대 六개군의 三十만 농민으로하여금그 빈약한 생활을 여지업이 비참하게만든 냉해재지 함남도내에 자살자와 변사자가 얼마나되나?

귀중한 생명을 초개같이 여기고 스스로 재목숨을 끈흔자가 백廿二명에 달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다시 변사자의 통계수자를 살펴보면 남자가 六백명 여자가 百四十명 합 七百五十명의 다수에 달하고 그중에도 조선사람남녀만 七백三十三명이 된다고하니 어찌 놀라지안흐랴?

一년을 통하야 가장만흔달은七월로 九十七명 八월이 九十二명 六월이 七十九명등의 순서로 되엇는데 그중에도 놀랄만한것은 동사(凍死)자가 남녀 七十七명에달하고 아사(餓死)자가 남녀 합 三十五명에 달한다는것이다.

그외에 익사(溺死)가 二百十二명 행려병사자가 一百十一명 늑사(縊死)자가 五十二명 압사(壓死)자가 五十八명등으로 되어잇는데 모다 냉해지 함남에서 자랄 가장 비참하고 서러운 사실이라고 한다.

鎭南浦府營 公設質屋竣工

【진남포】 총공비 一만원으로 장년九월에 신축에 착수한 진남포부영(鎭南浦府營) 공설질옥(公設質屋)은 지난三월부 신축공사가 전부준공이 되엇음으로 오는 十五일에 낙성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그날부터 영업을 개시할터이라고 한다.

茂山卓球大會
本報支局主催로

【무산】 본보 무산지국(茂山支局)주최의 제二회 탁구대회(卓球大會)를 무산체육협회 후원으로 자기와같이 개최한다는데 다수참가키를 바란다한다.

▲日時 四月十二日午前十時▲場所 茂山明倫學院 ▲申込金 一組(四人一組)一圓五十錢▲申込期日 四月十一日午前九時半

明日의 發展爲한 五大案審議
新義州商議役員會

【신의주】 신의주 상공회의소에서는 九일 오후 一시반부터 긴급역원회가 열리어 현하 신의주당면의 다급 五대중요안을 심의하고 동三시 폐회하엿다.

一, 鴨綠江人道橋架設件
이 안은 일즉 가등(加藤)회두가 총독부에 출두하야 제二철교가설여부를 질문한바 그때 길전(吉田)국장은 당분간 실현될듯이라는 회답이 잇엇음으로 제二안으로서 인도교가설을 요망하는것으로서 총독부는 만주국과 협동하야 표류량이 적은 상류와 두만강에 十四개소나 철교를 가설하면서 교통량이 만흔 신의주와 안동간에 인도교가 업음은 유감이라 하야 총독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엇는데 위회도(威化島)경유설이 제창되어잇다.

二, 新義州飛行場設備充實件
신의주 비행장은 국제항공로의 중추임에 불구하고 착육장의 설비가 불충분하야 휴장(休場)하고잇음은 유감인바 어는 해변, 쌍갑을 ...

三, 稅關廳舍改築件 ...
四, 朝鮮木材販賣統制件 ...
五, 滿洲國輸入關稅改正件 ...

貞操만蹂躪코 約婚을解消
위자로 五천원 내라고
海州法院에提訴

【해주】 백만장자가 남의처녀를 유인하야 ...

봄의 魔術！

【신의주】 봄은사람의마음을 들뜨게 ...

길까지들뜨게
◇…平北各地交通杜絕

消息

◆ ...
◆ ...

ClibPDF - www.fastio.com

[illegible]

小型論壇

▽一行十四字五十行以內 ▽紙上匿名은無妨하나住所氏名을明記할일 ▽原稿는東亞日報社學藝部로

「遊興」을삼가자

◇韓山申笠人

[illegible]

네거리集

題名이 「네거리集」 意味가 多少 模糊합니다 …

[illegible]

別室別答

[illegible]

磨齒ブラク

구라부

이를히고 强케하며·虫齒를 아니만드는! 完全한 淸淨美化作用

新家庭 四月號

女性朝鮮의現狀과趨移(下) …… 李如星

우리옷에對한나의觀察 …… 李小淡

生活改善은衣服으로부터

「우리옷」에처한 「프로스」와 「켠스」

朝鮮語學會 李克魯 · 培花女高普 李萬珪 · 東亞日報社 李如星 · 中國領事夫人 范王桂貞 · 梨專校長 亞扁薛羅 · 進明女高校 趙圻洪 · 平壤女基靑會 朴賢淑 · 家庭婦人 鄭賢淑 · 美術家 李淑鐘

그림없는그림책(七) …… 徐恒錫

四月의하늘빛 (隨筆) …… 張德祚

비나리는그날밤 (詩) …… 金岸

두루차짐 …… 譯詩 長堤人

巫覡의神歌 …… 孫晉泰

國際常識 …… 高永煥

史上에빛나는東西女傑들

震域古史의偉大한女性들

刺客의天使「샬롯·코데이」

救護의天使「나이팅게일」

佛蘭西의救國女神「짠·다크」

仁祖反正亂中三女傑

新家庭趣味室

美術裁縫

小說 알함부라 …… 白夜

넌센스短篇

女性時評 …… 朴順天

나의崇拜하는女性 …… 盧天命·文鳳德·李瑾根·朴奉愛·朴承浩·高鳳京·林孝貞

朝鮮史上最惡大奸인罪魁文女鄭妻 …… 沙雲

女學生時代回想記 其七 …… 李孝?

連作小說 破鏡 第一回

어린이페지

朝鮮動物傳說童話 의조흔동무 …… 林炳哲

合唱 이 …… 尹福鎭

女學生페지

信仰해 愛보려든 …… 梁河元

四네歌 個星바 하는文 …… 金直順

作 해時 K라 …… 金貞香

에回보 …… 李鎭喜

비게顧아問 …… 文仁淑

讀者文芸

봄은魔術師 …… 金貞任

그누가달빛아래서 …… 鄭福信

黃昏의憂鬱 …… 同人

나는어데로 …… 金桂花

靜思 …… 金順在

봄을찾어서 …… 韓金女

異鄕의月 …… 李瑞海

어머니 …… 林然

옛꿈이새로워 …… 女泰才

夜路(外一篇) …… 尹石海

人生의墳墓 …… 同人

진달내 …… 尹俊熙

燈臺 …… 同人

衣食住는이렇게

新春兒童服製法 …… 任貞爀

손수만들수있는「핸드빽」 …… 李順義

子女의新婚準備하시는 어머님들에게 …… 權福海

散步用點心만드는법 …… 文仁順

봄철손님은어떤飲食으로? …… 閔惠植

母乳와人工乳의榮養은이러라 …… 韓小濟

學生時代의理想을貫徹히리 …… 具滋玉

一殺人女囚의悲話

鷄卵料理十三種 …… 鄭貞媛

實現可能한理想의住宅設計案

黎明期 (90)

—(農村篇)—

張赫宙 作
鄭玄雄 畵

암류(暗流)(7)

괴우는 같이 따라 오겠다는 봉두가 너머 앙음으로 모다 거절을 하고 저혼자만이 가겠다고 나섯다.

그는 길을 가는 동안 외갓 생각을 거듭하는것이엇다.

일도나 태현이들의 심사를 생각하며 무어라 말하지도 못하게스리 엄청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은것같엇다.

대체 그 놈들은 무엇을 바라고 저러케들 간의 허파를 저질르는고 하겟거니와 강태형이나 조후이들의 심사는 아모리 좋의로 해석하려도 어느 한구석에도 그럴듯한 리유가 없지아니하나?

그들은 다만 제가 가장 잘나지 자 재진만이 가장 세력잡아하되어지지하는 욕심뿐, 제 눈에 거…

결국은 엄청거니 하나도 없어진 되이되어버리지않엇느냐?

그것을 돌오는이들 가슴이 갑갑하러니와 그러한 답을 알고힘으로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제가 잘라지자에가 이기자 하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미묘케생각는 사람이 조금한 잘못이 잇다고 하부곡, 턱고 해서 목의만한 얼골로 큰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이 때에는 수두룩하게 잇는것이다.

그것을 파거와 편당적, 소인적 누습이라고 일소해 버리기에는 너머나 무섭고 큰 문제가 아닌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러운 심사는, 역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병균과도 같이 개인을 파먹고 민족을 망치고, 사회의 향상을 저주하는것이다.

괴우는 그런것을 생각하매, 가슴이 터저 나가는것 같앗다.

사람들이 잃어 그들것인가 하고 생각하매, 더욱 가슴이 갑갑해지엇다.

그는 문득, 내가 역시, 나 보다 잘난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젓지나 아니한가? 내가 남을 미워하는것이 내몸으로는 사이, 나와 그 더러운 시기심이 나를 그러케 한것이 아닐가? 하고 반성해 보앗다.

그러케 생각하매, 어쩌 제마음이 옳지못한것, 같기도하여 머리는 더욱 혼란해지는것이 엇다.

그러타고 강태형이나 조후이 나를 잃다고는 못할것이며 더구나 일도를 생각하매 그네이고 부지한 존재가 쉽고 미워지는 것이엇다.

그는 참지 못할 흥분을 느끼고 흥분하고 잇는 존재가 심히 미워지는것이엇다. 그러는 사이 서울나들 것이엇다. 그러는 사이 당도한 것을 잇고잇엇다.

그의 엄명이를 살피러서 좋은 사실을 뒷아다니. 그것은 일도엇다. 일도는 모자를 푹수여쓰고, 등저가는사람을 보고서야 제정신을 차리엇다.

舞踊과 生活

世界觀、人格은舞踊의必順條件

(三) 朴泳仁

舞踊이 官能的인 歡求를 滿足시키든지 疲困한 사람들에게 慰安을 주는 程度에 不過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이 아니라 그러한것의 存在를 肯定하는 同時에 藝術로서의 舞踊은 훨신 높은곳을 向하야 나아가지 안흐면 안되는것이다. 우리들의 生活에 慰安을 주는 아니라 이것을 指導하는 힘을 가지지 안허서는 안된다는것이다. 現今 文化보다 數年先步라 할지라도 앞서나가지 안허서는 舞踊의 使命이 生하는것이다.

참말이지 最近까지는 舞踊이라고하면 極히 劣弱한것이엇다. 그래서 舞踊의 價値도 全혀 人間의 重要한 要素에 떠나서 그러한 舞踊이라고는 없엇다.

…

戱曲의 리얼리즘

—劇文學建設의길—(續)

(一) 朴英鎬

…

雅三俗四

申丹齋와 紅色內衣

…

漢詩

紫白散人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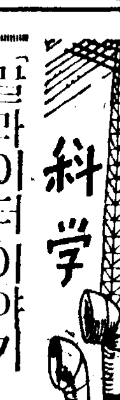
春夢選外 李舜載

南柯風靜午窓閑、
戶外奔忙摠不關。
園裡蘇敎鶯語覺、
國中誰化蝶身遊。
訪花次第當垂柳、
隨水尋常忽碧山。
晩起門庭依舊在、
方知萬事一壕間。

漢詩募集

雨 麥 押先韻 三月二十五日限

科學



「글라이더」이야기

高級滑空에對하야

(三) 金相稷

…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四月九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一時五十分 午後三時半 六時半

◆待望旣久!二大作封切◆

佛國토비스超特作映畵 名匠—작크·페—대監督作品 푸란소와—스로세에主演

미모사館

◇佛蘭西、에···도려超特作映畵

佛國스키界의第一人者 부이스트렌카主演原作

雪山의騎士

山岳스키—映畵의最高傑作으로 今日本스포츠界人士의 支持가크다

◇日活特作映畵

地雷火組

外人部隊 花嫁 公主 節 ···

優美館 (電話光三九五)

待望의豪華版 一九三六年의大放送 四月十一日부터大封切

武俠一代

戰ふ幌馬車

熱血荒神山

朝鮮劇場 (電話光二八一三)

四月十一日부터五日間 正午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開映

お落酒の王様

玩具의나라 (玩具の國)

會社員閣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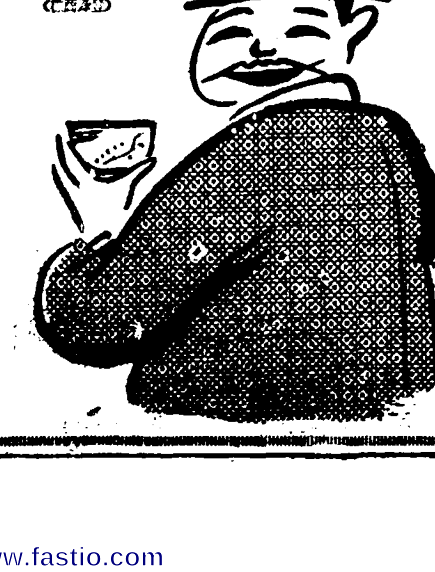
現代劇의代表作品

好職業

東亞日報購讀請求所

東亞婦人商會 電光四一一九

味の素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花王石鹼

어째?

最高의品質인가…

四十九年의經驗을갖은花王石鹼에는이러한特長이잇읍니다

●純粹한것

優良한原料만을精選配合하야嚴密한化學管理下에製造하기때문에그純粹度는世界最高의九九·四%를示하고잇읍니다

이것은花王石鹼이이미한柔軟한살에도刺戟이없고穩和하게作用하야皮膚를潤滑하게하는石鹼인것을化學的으로證明하는것입니다

●물커지지안흠

花王石鹼은獨特한製法에依하야製造하는故로適度로녹아시中途에물커지는일이없는故로最後의一片까지完全히使用케되어조금도바리지아니합니다、이것은花王石鹼이小型임에도不拘하고이보다훨신큰石鹼보다經濟가되는것입니다

眞摯하게石鹼을求하시는분은반드시 印이잇는花王石鹼이라고指名하십니다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 長瀨商會·大阪

産業

라인랜드ㅡ軍需工業

其重要性에 對하야 (3)

李政鍵

石炭

合成

輸出

埋藏

産額

染料

瓦斯

鹽配給圓滑을 期코 統制會社를 新創立

資本金은 三百萬圓

通商擁護法 三年間延長

朝鮮米運賃問題

結局五圓―七圓引上?

米對日中貿易

日本內地石油會社 共販組合組織

朝鮮棉의 恩人 文益漸先生記念碑

鐵城서 除幕式擧行

臨時町村財政 補給二千萬圓

十日閣議成立

超過保險一掃

勞賃은 昂騰 物價는 低落

三月中 京城標準

京城物價

三月中朝鮮銀行調査

(昭和十一年三月分)

三月中勞銀

京城勞銀平均指數表

(昭和十一年三月分)

元山三月中의 水産製品檢査

前年同期보다 增加

品質向上等으로 全州雨傘躍進

道令으로 特産物指定받고 製傘組合서 一切統制

朝鮮簡保契約 四千七百萬圓

昨年鐵道局線 貨物輸送槪況

繭增産을 要望

一年間去來額 六十五萬餘圓

比前年보다 四千頭가 激增 元山家畜市場狀況

三月末現在 國債種目內譯

産業俱樂部

치카타리스에 對하야

開城種蔘大凶作

時勢도 四割이나 暴騰

三井合名에서 理事制를 强化

朝鮮信託 信託勘定增加

米國小麥作況 六割八分五厘

地方産業雜信

貯銀貸出增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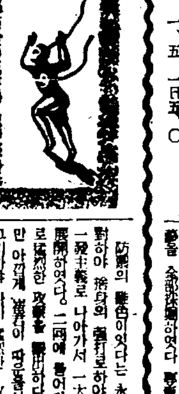
鑛業의 權利의 移動

鑛業權設定

鑛業權變更

鑛業代理人屆

스포-츠



拳鬪의 凱旋

東京에 갓든 選手一行 昨午、李監督引率下에

拳鬪記

李惠澤 記

氷上代表陣歡迎戰

養正6 培材3

大將、副將을 남기고 東高師柔道勝

六大野球리-그

立敎7 法政6

明大5 慶應2

四十二年만에 깨트러진 短縮마라손

三田稻門野球復活

올림픽 뉴-스

◇日本의 올림픽

今日의 運動